

1. 진정인 : 이00
2. 피진정인 : 송00

3. 진정 취지 : 저는 마케팅&CRM에 소속된 BDC라는 작은 조직에 있는 이00입니다 .

저는 1년 반동안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수시로 저에게 자행된 상급자의 성추행과 성희롱, 이를 동반한 직장 괴롭힘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

바로 형사고소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상급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

저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 고용에대한 안정성이 없는 위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급자가 이 약점을 이용하여 성추행과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했습니다 .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지만 , 정규전환을 미끼로 계속 가스라이팅도 당해왔기에 참고 또 참고 넘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하지만 이 모든걸 참아내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져버린 지금, 더 이상 묵과하면서 혼자 참기만해서는 안됨을 깨달았습니다 .

4. 진정 관련 사실

1) 퇴근이후 , 늦은저녁시간 , 평일 , 주말에 수시로 이루어진 업무외 사적인 연락 (너무 빈번하여 관련된 해당 날짜는 캡처본으로 갈음합니다)

저는 남편, 자녀와 함께 살고있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오는 사적인 연락으로인해 불안하고 불쾌하고 또 불쾌하였습니다 .

술마시고 오밤중에 톡을 보내오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업무적인 상하관계에 놓여있기에 마냥 침묵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기분상하지않게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주변에서 대답을 하지말고 씩으라는 코치를 받아 대답을 안하는 경우에는 "왜 팀장의 카톡을 보고 씩냐 " 고 다그치셨습니다 .

또한 저물래 저의 모습을 찍어서 늦은 저녁에 저에게 보내와 너무나 놀랐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

"내가 1순위야 , 나는 짝사랑은 하지않아 , 나랑도 한잔해줘 , 사진 좀 공유하지 , (저녁시간이고 주말이고) 머하고 있나 , 퇴근했나? 얘기할 상대가 필요해 " 등등

오밤중에 본인이 관리하는 유부녀 여직원에게 이런 성희롱성의 카톡이라니요?

2) 우위를 이용한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적인 신체접촉 > BDC 인센티브 회식 (2022.06.09)

BDC 인센티브가 나왔다면 회식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김00매니저, 이00매니저, 저 , 팀장님 4명에서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저는 입사한지 석달정도 지난 신입이었습니다.

호프집에서 팀장님과 저는 나란히 앉았고. 두명의 팀원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 팀장님이 계속 저의 허벅지를 쓸면서 만지셨습니다 . 저는 너무 당황하고 불쾌했고 너무 놀라서 어떤액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호프집에서 술먹는 내내 그러하셨고 얼어있는 저를 대신해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팀장님 쓸때없는짓 하지마시고 잔이나 부딪히세요 " 하면서 팀장님 손을 계속 탁자위로 올리게했습니다 .

그팀원은 팀장님이 계속 그러자 , 손을 밑으로 못내리게 하려고 같은말을 반복하면서 눈치를 보고 , 저는 아무것도 하지못했고 , 우리 모두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

이후 이루어진 회식자리에서도 팀장님은 저에게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셨지만, 팀원들이 저를 절대 팀장님옆에 앉지못하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 "팀장님 제가 앉을게요"라고 하는 매니저도 있었습니다.

3) 퇴근 동반 요구

메신저상에 제가 18시 이후에도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김없이 메신저로 연락이와서 왜 안가고 있냐고 물어보시곤 제가 있는 4층 사무실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BDC 공간은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방에 팀원들과 저만 모여있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혼자 야근을 하고있으면 퇴근하자면서 문앞에 서계시는 경우가 많아 (빨리 정리해 . 집에 데려다줄께) 다른 팀원들에게 가지말고 같이 기다려달라고 부탁도 여러번 했습니다.

다른 팀원이랑 같이있으면 안그러는걸 파악했습니다 . 나중엔 다른 팀원이 18시 이후에는 메신저를 로그아웃하고 일하라고 코치해주었습니다 .

그래도 2번은 어쩔수없이 팀장님차로 이동한적이 있습니다 . 서로 반대방향이라고 괜찮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할말이 있다면서 가는동안 얘기하자고 하시며 태웠습니다 .

이 경우 모두 저녁식사를 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 물론 거부했습니다만 , 거부하는것에 대해 너무 부담스럽고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

4) 위례전시장 방문 한 후 술자리 강요와 신체접촉 (2022.09.02)

이날도 어김없이 퇴근하자면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 갑자기 위례전시장에 들렀다가 가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

어김없이 할말도 있다고 하셔서 싫다고 하는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할 수 없이 차에 타서 이동했습니다 . 정규전환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

BDC의 50% 정규직으로 갈꺼다 (이 얘기는 회식자리에서 매번 하셨고 모든 팀원들이 들었습니다 .)

이00대리는 내년 연장하고 후년에 정규직 대리 3년차로 해줄꺼다 .

저희의 목숨줄이 팀장님에게 달려 있다는식의 대화와 현실에 제가 어떻게 강하게 싫다는 거부의를 할 수 있을까요?

위례전시장의 짧은 견학을 마치고 가볍게 저녁을 먹자며 바로 술자리로 이동했습니다 . 정말 가볍게 맥주한잔만 하는 자리였는데 맛이 없다면 다른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셨습니다 .

바로 옆집 삼겹살집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다말고 또 이동하자고 하셨습니다 .

팀장님 본인이 직접 선정했다면서 멀리 걸어서 이동해서 도착한곳이 파티션이 높어져있는 폐쇄적인 선술집이었습니다 .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셨습니다만, 그러하지않았습니다 .

또다시 제 허벅지를 만질꺼니까요.

제가 자리는 잘 피했지만 ,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는 10분내내 어깨를 감싸고 끌어당기고 저는 피하고..그렇게 이동했습니다 .

그리고 이동하는 차안에서도 대리기사 가 있었음에도 옆에 앉아 안전벨트도 하지않을 채 제 옆에 딱붙어 앉아서 또다시 어깨를 감싸고! 자기쪽으로 끌어당기고 가슴에 손을 스치고

집으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피할 곳도 없는 차안에서 도어쪽에 계속 붙어 오도가도 못한채 피하고 당하고 피하고 당하고를 반복했습니다 .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

이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 다시는 같은차로 이동하지않고 회식도 참여하지않겠다고요.

정말 불쾌했고 다음날이면 기억안난다고 핑계대는 모습에 과연 저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

5) 출장중에도 메신저로 연락해 술자리 요청 (카톡업무)

본인 출장중에도 뜬금없이 날짜를 지정해서 메신저로 물어봅니다 . 전체회식이 잡혀있음에도 그날이 아닌 날짜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원합니다 .

상하관계가 아니라면 화를 내고 왜 둘이 술먹자고 하냐고 화낼 상황이지만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맙니다.

업무메신저로 당당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그모습 굉장히 굴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

하지만 업무적으로 얼굴 붉히면 안된다는걸 잘 알고 있기에 화도 낼수 없었습니다 .

6) 광주 지점장회의 동반 후 술자리 강요 (2023.5.11)

SF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뜬금없는 광주출장을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 제가 필요하다면 가면 되지만 일정을 마치고 당일에 기차편으로 올라오겠다고 말씀드리자

"이대리 , 저녁식사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이야 참석해." 라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1박 일정으로 동행했습니다 .

광주지점장회의 참석한 저는 딱 5분 자기소개를 하고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을 했고 식사자리는 9시경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팀장님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상무지구로 옮겨서 둘이 술을 마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 불쾌했던 저는 피곤해서 숙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

숙소로 돌아와서도 9:30, 9:40, 10시에 "이대리 진짜 그냥 잘꺼야? 광주까지 왔는데 나와서 술마셔야지 " 나오라는 전화가 3번이나 왔고 그래도 나오지않자 , 독도 보내셨습니다 .

지방출장까지 가서 왜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과 둘이 굳이 유흥가로 택시까지 타고 가서 술을 마시자고 여러번 말씀하시나요?

그렇지만 저는 기분나쁘지않게 돌려 말해야했고 , 저의 안전한 숙소도착을 걱정해서 연락해주신 민무홍상무님의 연락을 받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모텔 숙소에서 혼자 있음에도 남자팀장의 연락이 계속와서 너무나 무섭고 불쾌하고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 .

또한 광주출장을 굳이 왜 데려가냐고 하는 마케팅직원들의 수근거림까지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직장에서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와 팀원의 정규직전환을 무기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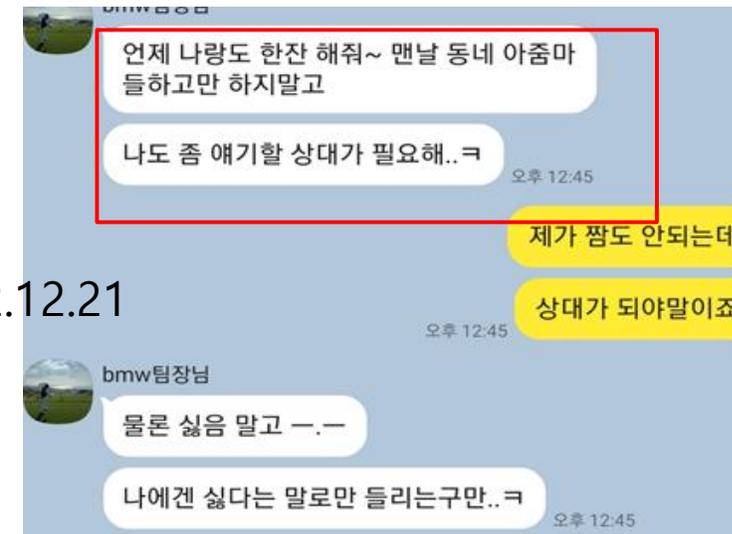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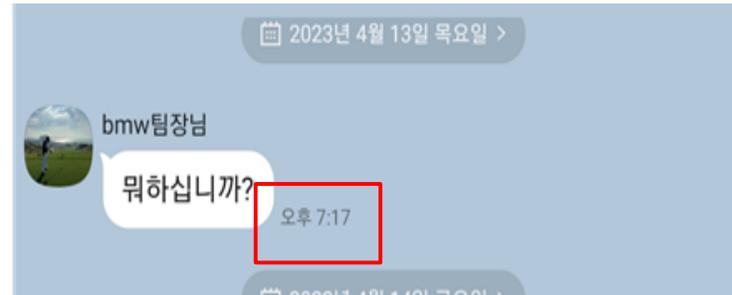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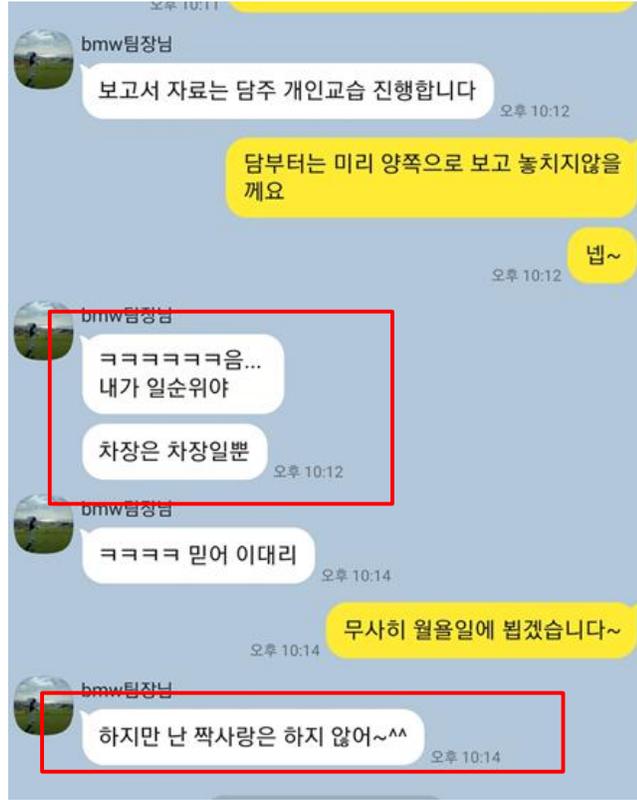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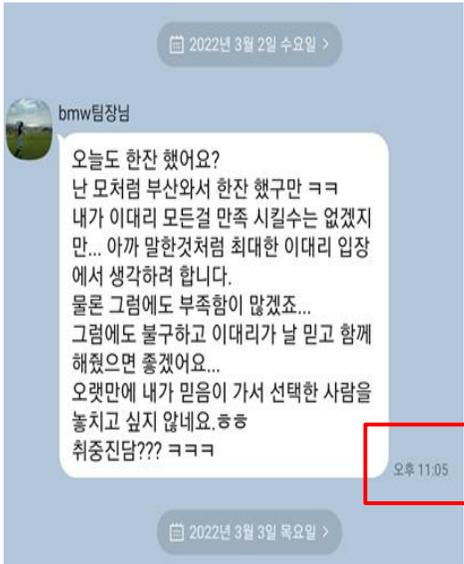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추행과 성희롱을 동반한 이 괴롭힘의 사례들이 정말 해서는 안될짓이라는것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

도대체 여자들만 있는 팀에 찾아와서 전체회식도 아닌 남자팀장을 낀 소수여직원들과의 회식을 강요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부하여직원에게 밤늦은 카톡과 술자리를 노래합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떠하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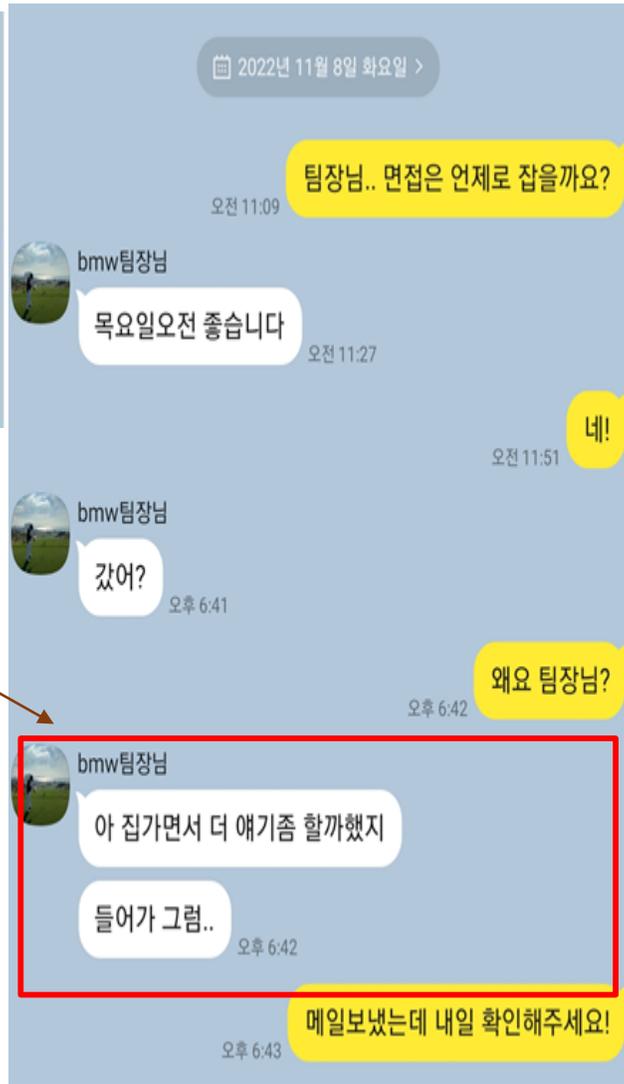
제 이전에도 그래왔고 저에게도 그랬고 이후에도 없어지질 않을것을 압니다 . 회사도 과연 이사실을 몰랐을까요? 묻고싶습니다 .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에 맞는 합당한, 최고의 징계를 내리길 바랍니다 .



늦은시간 성희롱 발언을 아무렇지않게 보내음

2022.12.21



사무실앞에서 자꾸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고 하셔서 결국 매니저들에게 같이 남아달라고 부탁하는 처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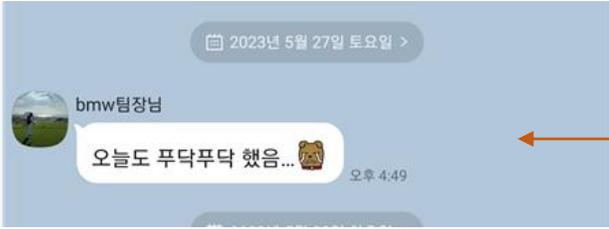
매니저들과 같이 나가도 바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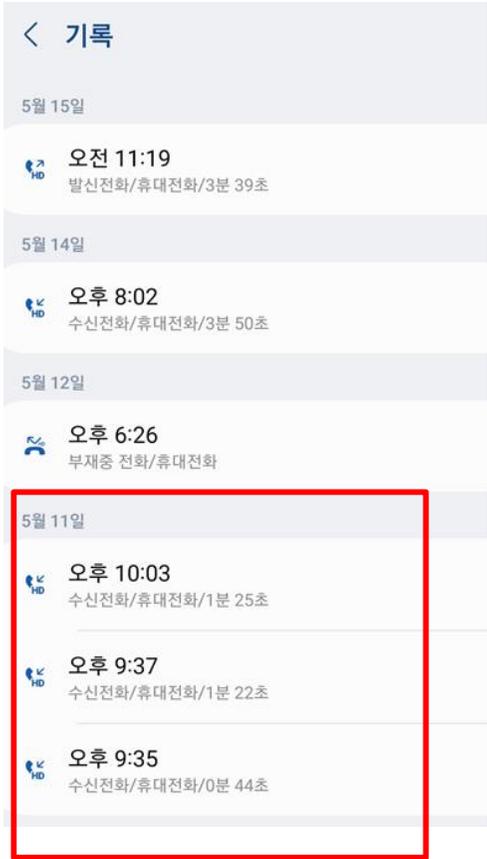
팀장님은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날 늦은시간 제사진을 찍어서 보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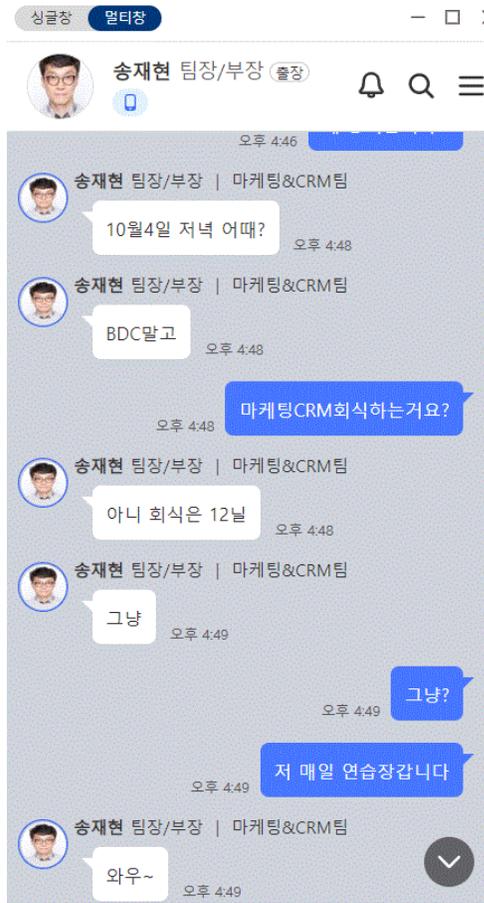
저녁시간 공동연차인날 뜬금없이 본인사진 보내고 게다가 사진도 공유하라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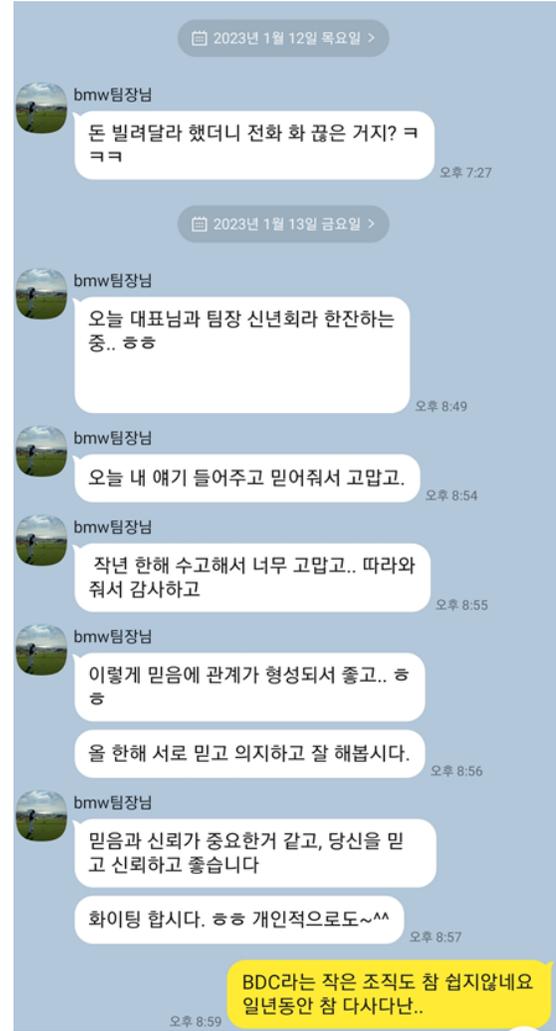
- 주말 무슨뜻인지도 모르겠는 업무외적인 카톡 보내음



- 광주출장 5/11 통화기록



- 본인 출장중임에도 사내메신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



- 늦은 저녁 술마시고 보내오는 카톡